



교보증권 박종서 광주지점장은 KTF와 인탑스 등 통신 관련주...

다. 인탑스는 주 납품처인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량 증가와 HSD-PA 등 신규서비스 개시로 선진국에서 휴대폰 단말기 교체수요가...

HSDPA 상용화 성장 '탄력'

(고속영상이동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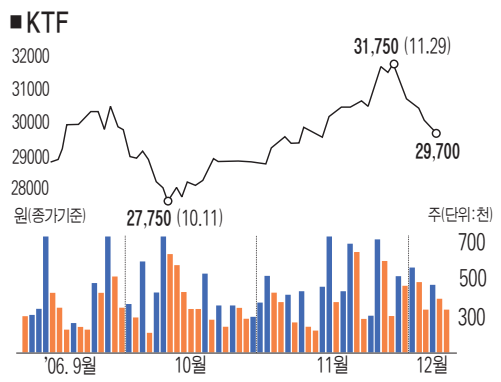
KTF

KT계열의 이동통신 서비스제공 업체. 1999년 11월 코스닥시장에 등록했다가 2004년 4월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겼다.

016 가입자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무선인터넷을 통한 유료 서비스 확대에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자 확보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 확대에 수익성은 하락하는 추세다.

휴대폰 사용자 4천만명시대를 맞아 포화상태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KTF는 내년 1분기까지 전국망을 깔 계획으로 SK텔레콤에 비해 HSDPA방식에서는 한발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PA 기반 서비스를 아시아권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로밍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KT의 초고속인터넷과 KTF의 이동전화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가 결합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JP모건증권은 KT와 KTF의 결합서비스 승인이 나더라도 경쟁업체들의 반발에 고려할 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휴대폰 단말기 교체수요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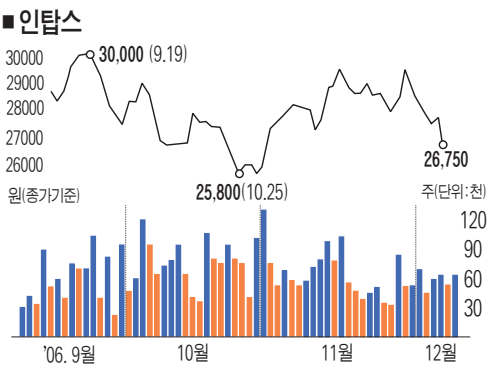
인탑스

국내 휴대폰 케이스 1위 업체다. 올해 휴대폰 부품주들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 업체는 휴대폰 케이스의 30%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등 안정적인 납품처 확보로 선전하고 있다.

고정비용 증가로 인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했지만 중국 천진공장의 매출 증가로 인한 지분법 평가이익은 확대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인탑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휴대폰 케이스 부분의 삼성전자 내 점유율이 30%이상으로 선두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휴대폰 출하량이 내년도에 1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천진법인의 매출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영상의 상승 폭이 커질 것이라 전망했다.

즉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문 성장에 따라 이 업체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 전망했다. 선진국 시장에서도 WCDMA(광대역무선분할다중접속)와 HSDPA 등 신규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휴...



대폰 교체수요가 늘 것이라 점도 긍정적이다.

또한 슬라이드폰과 다양한 소재의 강화 플라스틱 등 프리미엄 제품이 늘어나고 휴대폰 외장 케이스의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는 점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삼성전자가 치우친 납품 구조로 인해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 부문이 침체될 경우 실적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서울 아파트 분양가 연평균 19%씩 상승 외환위기 이후 최근 10년간

외환위기 이후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연평균 19% 가량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는 10일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연도별 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479만원에서 평당 1천364만원으로 연평균 18.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분양가가 평당 354만원에서 981만원으로 627만원이 올라 연평균 17.7%씩 뛰었으며,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10년간 평당 312만원이 오른 777만원으로 연평균 6.7%의 변동률을 보였다.

반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분양가 상승률을 크게 밑돌아,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평당 700만원에서 1천545만원으로 연평균 12.1% 오르는 데 그쳤다.

지역별 매매가 상승률은 서울에 이어 ▲경기 7.7%(498만원→884만원) ▲울산 6.9%(232만원→382만원) ▲인천 6.1%(337만원→543만원) ▲충북 4.5%(229만원→332만원) ▲충남 4.3%(274만원→391만원) ▲대전 4.0%(348만원→486만원) ▲대구 3.6%(345만원→469만원) ▲강원 3.1%(224만원→292만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리스크 현실화 될 경우

한국경제, 중국에 뒤처질 수도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면서 중국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 경제가 중국에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차이나 리스크 현실화 된다-중국 외환보유고 1조 달러 시대의 파장'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 외환보유고가 11월 말 현재 1조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으로 지난 2월 일본의 외환보유고를 넘어 세계 1위 규모로 부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면 2008년에 1조5천억 달러, 2010년에는 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중국이 외환보유고 증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달러화 위주로 된 외환보유액 통화 다변화 ▲원유 등 전략적 자원에 대한 투자증대 ▲투자 수익성과 경제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투자 장려 ▲무역흑자 억제에 위한 임가공 중심의 수출산업정책 변화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2,800만명 신용점수 산출"

한국개인신용, 금융사에 제공기로

KCB(한국개인신용)가 내년부터 2천800만명에 달하는 개인신용점수를 산출해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새로운 신용점수 시스템은 개인신용평가가 필요한 우량정보가 중심이 돼 개인별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차등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KCB는 "외환정보 중심의 'KCB 스코어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1월부터 금융기관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모델이 연체정보 및 조회정보 등 불량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KCB의 모델은 대출 및 카드대금 상환실적 등 우량정보 중심이다.

따라서 현재 재산이 없고 소득이 작더라도 금융회사에 연체 경험이 없고 대출을 차근차근 상환해온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더욱 오르게 된다. 이에 비해 재산이나 소득이 많더라도 습관성 연체자들은 신용등급이 내려가게 된다. 즉, 상환을 잘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출한도도 커지고 대출금리도 내려가게 된다.

/연합뉴스

4년제 대졸 초임 월 188만원

경총, 기업 임금인상률 5년째 하락

4년제 대졸 신입사원 평균초임은 월 188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국내 기업의 임금인상률은 평균 5.4%로 5년째 하락세가 지속됐다.

한국경영자총합회가 종업원 100명 이상 업체 1천3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2006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봉제 미실시 기업의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월 187만9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245만6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188만2천원, 제조업 186만4천원,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83만6천원, 도매 소매업 179만2천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졸신임을 제외한 직급별 초임은 부장급 월 399만1천원, 차장 349만2천원, 과장 301만원, 대리 250만8천원 등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내년엔 1,800"

분석가들, 경기·기업실적 낙관론

정해년(丁亥年) '황금 돼지의 해'를 맞아 내년 주식시장에 대해 증권사들의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내년 증시가 올해의 부진을 만회하고 상승 추세를 회복할 것이라며 대부분 1,650선 이상의 코스피지수 목표치를 제시했다.

반면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최고 1,800 전망=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증권사들이 제시한 내년 지수 고점은 현대증권 1,580포인트 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동양증권 1,650포인트, 삼성증권·대우증권 1,700포인트, 우리투자증권 1,710포인트, 굿모닝신한증권 1,720포인트, 교보증권 1,780포인트 등이다. 부국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높은 1,800포인트의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내놓았다.

국내 증권사들의 낙관론의 근거는 경기 둔화 우려의 완화와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올해 주식시장을 짓누른 가장 큰 요인이기도 했던 국내의 경기와 실적 모멘텀이 내년에는 보다 개선...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연간성장률 둔화 우려에도 기업이익은 증가할 전망이고 예상대로 2007년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면 연착륙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장기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다"며 내년 증시를 밝게 전망했다.

외국인의 매도세도 올해보다 진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수급 전망도 밝다.

◇일부 외국계는 신중론=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지수 전망도 보수적으로 제시했다.

모건스탠리증권은 내년 증시가 '상장'보다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중립적인 관점에서 12개월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1,490포인트를 제시했다.

크레디티리온(CLSA)증권의 코스피 지수 목표치도 1,550포인트로 그다지 높지 않다.

한편 UBS증권은 내년 한국증시가 올해보다는 훨씬 양호할 것이라며 내년 코스피지수 목표치를 1,650포인트로 잡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장애아동들이 자선바자회

미스코리아 진 이하늬(우측 2번째)씨 등 올해 미스코리아들이 10일 서울 현대백화점에서 열린 장애아동들이 자선바자행사에 참가해 고객들에게 의류를 권하고 있다. 이 의류는 백화점측과 협력업체들의 기증품으로, 판매수익금은 전액 장애아동들에게 전달된다.

/연합뉴스

산업계, 환율 급락에 해외투자 '박차'

공장·유통시설 등

신·증설 본격 추진

국내 산업계가 최근 지속된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해외 공장이나 유통시설의 신·증설 등 해외투자 확대에 눈을 돌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계는 해외투자를 통해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경제불복화로 인한 통상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세 면제와 물류비용 감소 등을 활용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2007년 준공 목표로 중국 2공장(투자비 10억 달러), 광저우 현대 상용차공장, 인도 2공장 및 엔진, 트랜스미션 조립공장(14억 달러) 등을 건설 중이며, 내년초부터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체코공장(10억 유로) 건설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체도 최근의 환율 급락에 속해 해외공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첸나이에 제2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주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 향후 5년간 1억달러를 투자해 급증하고 있는 현...

지 TV와 모니터 등 전자 제품의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도 지난 9월 러시아에 PDP와 LCD TV, 세탁기 등을 생산하는 디지털 가전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2008년까지 생산능력을 TV·세탁기·냉장고·오디오 품목별로 연 100만대씩 총 400만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 역시 인도 일관제철소 건설 및 광산개발(120억 달러), 베트남 철강제품 생산공장 건설(11억3천만 달러), 멕시코 CGI공장 건설(2억6천200만 달러), 신일분체철 주식 추가매입, 태국 타이녹스 지분 15% 인수 등의 굵직한 해외투자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columns: Job Name, Department, Salary/Requirements, Start Date, Contact Info. Includes roles like Production/HR, Sales, and various management positions.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로도복권 (제210회)

Table with columns: Rank, Winning Number, Prize Amount. Shows top prizes of 2 billion 398 million 950 won and 372 million 754 won.

팝콘복권 (제33회)

Table with columns: Rank, Winning Number, Prize Amount. Shows top prizes of 263 million 541 won and 263 million 540 won.